잠 못 드는 불금엔 '심야책방'

마지막주 금요일 '책의 해' 행사 토론·산책하고 고민편지쓰고 "적어도 자정까지 문 열어요"

한달에 한번 정도 밤늦게까지 문을 여 는 서점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일주일 근무가 끝나고 들뜨기 마련인 불금. 딱히 약속이 없지만 그냥 시간을 보내기에는 아쉬운 금요일 저녁, 떠들썩한 분위기를 피해 책을 고르며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 은 어떨까?

올해 6월부터 매달 마지막주 금요일에 는 동네 서점들이 심야 책방으로 다시 태 어난다.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불처럼 심 야의 책방은 각기 다른 특별한 이야기를 품고 책을 사랑하는 독자들을 맞이한다.

'2018 책의 해'를 맞아 동네서점들이 박늦게까지 문을 열고 독자들과 소통에 나선다.

책의 해 조직위원회는 오는 29일 첫 '심 야 책방의 날'을 맞아 광주의 '심가네 박 씨', '연지책방', 순천의 '도그책방', 완도 의 '완도살롱' 등 전국 77개 동네서점에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야 책방의 날'은 12월까지 매달 마지 막 주 금요일에 심야독서, 토론회, 창작, 와인시음, 산책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친 다. 서울이 24곳으로 가장 많고 광주가 9 곳으로 뒤를 이었으며 전남은 3곳이었다. 광주가 가장 많은 것은 독립서점 모임이 공동 행사를 꾸준히 해온 터라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심야 책방의 날'은 서점이 정규 영업시 간보다 연장해 문을 열고 독자와의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다. 보통은 밤 9시 전후 로 문을 닫지만 이날만큼은 밤 12시 넘게 까지 운영을 한다. '심야 책방의 날' 참여 서점들은 밤 12시까지는 예외 없이 문을 열고 그 이후 시간대는 서점 자율로 시행



광주시 동구 지산동 '심가네박씨'가 운영한 독서 관련 행사 모습.

〈심가네박씨 제공〉

■내일 심야책방 참여 서점 공백·라이트라이프·메이드인 아날로그·소년의서·심가네박 씨·연지책방·책과생활·충장 서림·타인의책지음책방 순천 도그책방·여수 제일서적

한다.

동구 장동에 소재하는 '책과생활'은 재 기발랄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신선한 행 사를 계기로 책과 독자와의 벽을 허물겠 다는 의도다. 이곳에서는 '무엄하게도' 손 님들에게 시험지를 나눠 줄 예정이다. 바 로 '한밤의 오픈북 책방고사'. 방법은 이 러하다. 서점 주인은 문제만 풀어도 독서 가 될 수 있는 마법의 시험지를 준비한다. 독자는 서점에 있는 책을 꺼내 오픈북 형 태로 문제를 푼다. 주인장은 "시험이 끝나 면 책이 읽고 싶어지는 마법"이라고 설명

'연지책방' (용봉동)에서는 '연지책방 의 기적'이라는 행사를 연다. 독자가 고민 편지를 책방 내 우체통에 넣으면 책방지

기, 작가, 상담 전공자 등으로 구성된 고 민편지팀에서 이에 대한 답장을 독자의 집으로 우편 발송하는 활동이다. 책방 측 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과 영화 '레터스 투 줄리엣' 등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0507-1300-7982)

책방 '공백' (봉선동)에서는 '루돌프를 찾아서 in 광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손님 이 자신의 코끝이 찡해진 문장이나 순간 을 찾아서 기록하게 할 계획이다.

소외된 텍스트 희곡을 살리는 행사도 진행된다. 인문사회과학예술 서점인 '소 년의서'(충장로5가)에서는 '야밤의 희곡 분석회'를 개최한다. 희곡을 통해 사회를 읽는다는 취지로 헨릭 입센의 작품 '인형 의 집'을 함께 읽고 분석하는 시간을 갖는 다. (010-3256-2625)

박사 출신의 부부가 운영하는 '심가네 박씨'(지산동)는 10명 안팎의 독자들과 함께 책을 읽고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다. 또한 함께 푸른길을 걸으며 늦게까지 책의 향기에 빠져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 이다. (062-229-0687)

'충장서림' (금남로2가)에서도 밤 12시 까지 문을 열고 '불금'에 책방을 찾아오는 독자들을 맞 는다. (062-227-1932) 또한 '메이드인 아날로그'(양림동)에서는 수 채화로 책갈피를 만들며 창작의 기쁨을 누릴 예정이다. (062-400-0012)

요즘 핫이슈인 페미니즘을 소재로 한 토론회도 열린다. '타인의책 지음책방' (지산동)은 밤 11시부터 '잠들지 않는 토 론'을 계획하고 있다. 페미니즘을 주제로 10명 이내의 참석자가 다양한 관점에서 왜 지금 페미니즘이 회자가 되고 있는지 를 분석할 예정이다. (062-457-1208)

순천과 완도, 여수에서도 심야 책방의 날 행사가 열린다.

'도그책방' (순천), '완도살롱' (완도)에 서는 분위기 있게 와인을 즐기며 책에 관 한 이야기를 나눈다. 도그책방은 그림책 을 중심에 놓고 이에 맞는 와인을 선정해 이탈리아 요리 연구가의 음식 이야기를 함께 들을 예정이다. 일상 속에서 그림책 을 보며 와인을 마시는 소소한 즐거움을 통해 어른들을 그림책의 세계로 끌어들인 다는 포석이다. (010-2889-1687)

한편 책의 해 조직위원회에서 참여 신청 을 받은 결과 6월에만 77곳의 서점이 신청 했고 7~12월에 참여 의사를 밝힌 서점을 포함하면 120곳이 넘는다. 조직위는 매월 추가 접수를 받아 참여 서점을 올해 안에 200군데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미투' 이후 한국 문단은 변했을까

문예지 '문학들' 여름호



올해 초부터 우리 사회 전반 으로 확산된 '미 투' 바람이 우리 문단에는 어떤 변화를 미쳤을 까. 그리고 향후 우리 문단은 어 떤 변화를 꾀해

야 할까.

광주에서 발간되는 종합문예지 '문학 들' (여름호·통권 52호·사진)가 미투 이 후의 한국문학사를 들여다봤다.

권명아 동아대 한국어문학과 교수는 '페미니즘, 문단 문학에서 문학의 정치성 을 탈환하다'라는 글에서 최근의 미투 운 동 사태 속에서도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 는 한국문단의 주류 세력을 비판한다. 1990년대 이른바 '신경숙 표절 사태' 때 불거진 문단 권력의 문제, 당시 활발하게 제기된 페미니즘 문제를 문단이 문학외 적인 문제로 간과해 버린 과오가 지금의 미투 운동을 낳게 한 측면이 있다고 본 다. 몇몇 대형 출판사를 중심으로 한 독점 자본화와 노골적인 이익집단화에 대항하 며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던 기회 를 문단 스스로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권 교수는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확연

히 다르다고 주장이다. 1990년대에 활발 했던 페미니즘 연구가 기존의 문단 권력 에 의해 문학 제도 내부의 분류 항목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끝났던 과거에 비해 지 금은 익명의 페미니스트 다중이 문단 문 학의 독점 체제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 서 역동적이라는 것이다.

'문학들' 비평란에도 페미니즘 문제에 대한 점검이 첨예하다. 김주선 평론가는 '모든 문학과 모든 정치를 위해'에서 최 근 소설 '82년생 김지영'을 둘러싸고 전 개된 문학과 정치의 관계를 정리하며 현 대 사회에서 위계 없는 글쓰기, 무한한 방식의 글쓰기를 모색한다. 김청우 평론 가는 'RE: 재로부터 재소환하는 제로의 시쓰기'에서 남지은, 김소연, 김언의 시 를 중심으로 문학과 정치(페미니즘)을 둘러싼 상황을 분석하면서 페미니즘 문 학이 단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권력이 존재하는 기성 언어에 대한 해체의 언어 임을 주장한다.

이번호에는 5.18문학상 수상자와 작 품이 소개돼 있어 문학적 관점에서 오월 광주의 현주소를 가늠할 수 있다. 또한 광주의 정체성을 새롭게 탐구하고 있는 '뉴 광주 리뷰' 등과 조선인 위안부의 삶 을 얘기하는 이영진(서강대학교 트랜스 내셔널 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의 '위험한 기억들'도 읽을 만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피아노 4대 웅장한 선율…광주대 연주회

내일 문화전당 극장2

광주대학교 문화예술대학 음악학과의 피아노앙상블연주회가 29일 오후 7시30 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2에서 열린 다. 이번 연주회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의 2018 예술대학 협력프로그램-ACC 대학공연예술제의 마지막 행사다.

이번 연주회는 4대의 그랜드피아노에 2명씩 앉아 8명이 함께 연주하는 특별한 공연이다. 레퍼토리는 '서주와 사자왕의 행진', '수탉과 암탉', '숲속의 뻐꾹새', '백조' 등 짧은 악장마다 온갖 동물을 유 머와 섬세함으로 표현한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와 '사탕 인형의 춤', '갈대 피리 의 춤', '러시아의 춤' 등으로 구성된 차 이코프스키의 발레곡인 '호두까기인형 모음곡'이다. 또 구노의 '파우스트 왈츠' 도만날수있다.

이번 공연은 4대의 그랜드피아노에 서 나오는 웅장한 사운드를 감상할 수 있으며 영상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함께

전석 무료. www.acc.go.kr. 문의 062-670-2659.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日 도쿄대 교수 '식민지 조선의 언어' 내일 전남대 강연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단'(단장 신해진 ·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 오는 29일 오후 2시 인문대 2호관 교 수회의실에서 해외 석학 초청 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초청 강연 강사는 도쿄대학의 미 쓰이 다카시〈사진〉 교수다. 미쓰이 다카 시 교수는 '동아시아의 어문 정치:식민지 시기 조선에서의 일본어 문제'를 주제로



볼 예정이다.

연을 통해 중・일 전 쟁 이후 조선 식민 지 언어 정책을 살 펴보고, 국어로서 일본어를 사용해야 했던 조선 사회의

여러 국면들을 살펴 /박성천 기자 skypark@

대전, 대한민국한국화대전 등에서 우수상 내일 상반기 강좌 수료식

한국화·차요리…전통강좌 '청사초롱' 입상자 잇단 배출

좌 '청사초롱'이 각종 공모전에 입상자를 꾸준히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문화관 관계자에 따르면 문화예술 강좌가 개설된 2012년 이후 수강생 중 공 모전 및 경연대회 입상자가 1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 개설돼 이성임 강사가 담당하 는 전통채색화반은 광주전남권 주요 공모 전인 광주광역시미술대전, 전라남도미술

과 특선, 입선작 수상 등 수상실적을 올렸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문화예술강 다. 2014년 초기부터 전통채색화 수업을 받아온 수강생 중에는 공모전의 추천작가 ·초대작가까지 오른 수강생도 있다.

> 이 밖에 판소리강좌 수강생 2명이 각각 목포국악제 신인부 대상과 서봉국악제 체 험마당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청소년 가 야금병창반 수강생은 2014년 대한민국가 야금병창대제전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남 도의레음식장에게서 전통요리를 배운 수 강생은 최근 차요리대회에서 우수상을 받

광주시지정무형문화재가 강좌를 진행 하는 전통문화관 문화예술강좌는 판소 리, 가야금병창, 전통음식, 전통채색화 전통다례 등 10개로 현재 일반 시민 150 여명이 강의를 듣고 있다. 상반기 강좌 수 료식은 29일 오후3시 전통문화관 서석당 에서 개최된다. 전통채색화반 작품전시회 '민화를 보다'는 전통문화관 입석당에서 오후5시30분 개막식을 시작으로 7월 6일 까지 전시된다. 문의 062-232-1502.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칼라강판지붕공시



전통음식 강좌 모습. 〈광주문화재단 제공〉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냉·난방비 절감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걱정3+XI PHHIB!!

부분설비(누수)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전남 시공회사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TWIN

(모던건설)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시공문의 H_010-9229-3530